

## 눈이 열린 다윗 (사무엘상 17:40-50)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언약과 기도와 전도, 이 세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약속이고 언약인데, 하나님은 항상 약속대로 하신다. 약속 안한 것을 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잡고 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의 근본이고 생명과 모든 삶이 나온다. 그런데 이 약속이 약속이 성경에만 있는게 아니라 삶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기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기도이다. 전도는 약속과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증거로 나타나고 그것이 전도로 가는 것이다. 이 약속이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성취면 응답이다. 이 응답이 있으면 증인된다. 말 안할 수가 없다. 그 결과가 전도이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주어져있고 변하지 않고 다시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전도는 그 약속의 열매이다. 그래서 남은 것은 기도라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중요한 치유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삶 속에 나타나기 바란다. 우리는 결국 인생의 목표가 전도이다. 힘쓰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다 보면 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냥 전도하는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전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살릴 수 있다. 복음을 모를 때에는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이슈였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누리는 기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은 이슈는 전도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그래서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더 깊은 성격적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부족할 것 같아도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다. 잘 생각해 보고 진짜 답나고 언약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단 한번도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시대적인 복음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중요한 것은 복음 하나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도바울 이후에 단 한번도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고 절대 물러서지 말아라. 사단은 자꾸 이것을 깨려고 한다. 오늘 다윗처럼 눈이 열리기 바란다. 그 눈 열리면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모든 골리앗은 다 무너진다.

### 1. 눈이 열린 다윗

사람이 눈이 열리면 답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답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한다. 아주 단번에 파악을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정복하게 된다. 그것이 눈이다. 이렇게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실수하지 않는 성령인도를 받게 된다. 시행착오 계속 나타날 수 있다. 눈 열리면 그런 것 없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지속적으로 보게 된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많이 있다. 성경에 많이 있고 실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 계속 응답을 받아서 염려가 없어진다. 문제를 정복해버리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아주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이다. 단어 하나 잡으면 된다. 하나님 나도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것 안 열려서 고생하는 것이다. 나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했다. 내 마음에 정복이라는 말이 내 입에 나온 것은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나올 수 없다. 어쩌다 한번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은 말 못한다. 양심에 걸려서. 정복할 수 있다. 인생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세상에 눌러 사는 것이 아니다. 정복을 하고 밟아야 한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다. 부자 기업가는 은행에 빚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생각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정복을 한 사람도 있다. 문제 많다. 이런 저런 것 계속 일어난다. 그래도 상관 없다. 정

복한 사람이 있다. 그 정복한 언약대로 인생이 되어 버린다. 눈 열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이 다른 점은 눈이 달렸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골리앗이었다. 골리앗이 누구인지 보는 눈이 달렸다. 하나님은 항상 근본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는 구하는 장면이다. 왕을 포함해서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도 아니고 훈련도 한번도 안 받은 어린 소년이 깨끗하게 단판에 해결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되었는가? 17장 26절과 36절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골리앗을 말하였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인간, 이것이 다윗의 눈이었다. 군대의 전쟁터에서는 힘이 필요하다. 좋은 무기가 필요하지 무슨 할례받지 않은 장난같은 어린이에 같은 소리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리숙해 보이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벌벌떨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때에는 어리석게 보인다. 분명히 뱀의 머리는 박살나고 저주에서 해방될거야.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 수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놔두고 이 바보같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다. 아무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했다. 우습게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셨다. 평소에도 다윗은 이런 눈으로 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다. 어떻게 죽이겠나? 사자와 곰이 오면 따라가서 수염을 잡고 입을 찢었다는 것이다. 가능하겠는가? 응답이다. 왜 응답을 했냐는 것이다. 여기서 진짜 멈춰서 답 내야 한다. 답이 나도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 답 주시라고. 그걸 오늘 말하는 것이다. 너도 다윗처럼 해라. 그러면 다윗같은 인생이 될거야. 그래서 그때 나온 답으로 더 눈이 열리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죽이려고 다가오는데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보면 정상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진짜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눈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는 똑같이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가지고 미쳤다고 한다. 17장 28절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큰 형이 엘리압인데, 다윗과 나이차이가 적어도 15-20살 차이가 났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아버지이다. 그래서 형이 이야기 했다. 평소에도 교만하던 놈이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한 것이다. 양은 어디다 두고 왔어? 빨리 돌아가서 양이나 치라는 말이다. 왜 완악하다는 말, 교만하다는 말을 들었는가? 평소에 다윗은 그 형 말을 안 듣는다. 형이 보기에 말도 안 듣고 조그만한 놈이 아주 못되었다. 왜 말을 안 들었겠는가? 형이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영적 수준과 눈이 다르기 때문에 안 통한 것이다. 그래서 되지 않은 일을 시키니까 안 한 것이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수준 차이가 나서 대화가 안되는 것이다.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 같이 이야기 해보면 말이 안통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이 영적으로 통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에서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그건 하기 싫고 응답만 받고 싶어, 그러면 갈등이다.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한다. 응답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바꿔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왜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합니까? 이것이 통하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되는데. 다윗 혼자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똑같이다. 전쟁터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소리나 하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문제도 영적 문제 아닌가? 전부다. 그러면 어쩌야 하는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해야 한다. 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응답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영이고 문제도 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에게나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다. 멘트들도 어릴때부터 영적인 눈에 대한 수업을 하라.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눈이 들어가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 바뀌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이거면 끝이다. 그리고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다른데서 끝내면 당하는 것이다. 혹 좋은 직업이 있어서 당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다윗같은 최고의 렌트맨의 자리는 못 간다는 것이다.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사람들 속에서는 좋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무엇인가? 지리멸렬하는 것이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사람들끼리 도토리 키재 봐야 뭐하나? 모세는 가나안 가는 것을 기적으로 맹종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이해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가면서 그 광야에서도 은혜 많이 받았다. 힘도 없고 기쁘고 감사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눈이 없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고역이었다. 따라가니까, 왜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하였다. 수시로 돌아가자고 난리였다. 가만 죽을것이라고 하고, 생각되고 되었다. 결국,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나하고 하나님하고 눈이 안 통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안들어갔다. 요셉을 하고 싶나, 요셉의 형들을 하고 싶나? 다윗을 하고 싶나, 다윗의 형들을 하고 싶나? 수없는 군인을 하고 싶나, 다윗을 하고 싶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를 바꿔야 한다. 나도 눈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것 가지고 40일 굶고 울고 기도해야 정상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골리앗을 근본적으로 정리했다. 아예 제껴뒀다. 인간취급을 안하였다. 할례도 받지 못한게, 아주 제껴버렸다. 출발 자체에서. 이런다윗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심지어 큰 형까지도. 사람들은 다 반대로 말한다. 그리스도면 다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하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기도가 정말 깊은 사람은 기도로 끝이다. 기도에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은 해야 한다. 저 귀신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느냐는 것이다.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힘증 있다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너 무나 당연한 결론인데,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전부다 벌벌 떨고 있다. 왕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다윗 한명의 고백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두고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사람 되기 바란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음부의 권세가 나를 절대 못 이긴다. 천국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막히는 문이 없다. 옆에서 머리 좋은 사람은 미쳤다고 할 것이다. 니가 무슨 힘으로 모든 문을 열어? 돌아이라고 하든 말든 매일 고백하라. 천국 열쇠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모든 문 열린다. 전도문, 선교문, 경제, 건강, 가정, 자녀, 모든 미래의 문 다 열리고 아무도 못 막는다. 바보라 하든말든 이것으로 살아야 한다. 다 아는데 못하는 이유는 중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다.

## 2. 서밋타임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단어를 모르는 이스라엘 군인은 없었다. 단지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다윗의 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 힘이 세면 뭐가 어찌란 말인가? 이스라엘 군인중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 못했다. 골리앗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평소에 영적으로 살지 않는다. 평소에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없다. 영적인 눈이 없으니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례받지 않은 자같은 소리 하네, 이게 엘리압이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시작했다. 저게 힘이 있으면 뭐 어찌란 말이야?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가? 이게 다윗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쟁터에서 무슨 귀신 운운하고 있어? 인생은 영적 전쟁이다. 귀신 운운하면 똑똑한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가서 일해야지 지금. 그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니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귀신에 불과하다. 할례를 받지 못한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겠는가?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언약 잡은 나를 이기냐는 것이다. 힘이 있고 키가 크면 어찌란 말이야? 여기서 모든 것 다 나왔다. 하나님이 바보같은 다윗에게 역사했다. 서밋타임은 이 사실을 누리는 것

이다. 귀신 필요 없고 몸 커도 필요 없다. 이 약속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서밋타임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서밋타임의 내용이 내 인생에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내용 하나면 정복하고 모든 것 다 하는 것이다. 수많은 제자들 세우고, 수많은 제자 세우고 땅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 내용 하나면. 다윗은 이 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언했다. 너는 오늘 나에게 죽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봐야 소용없어. 너는 오늘 나에게 죽었다. 아주 단정했다. 나는 네 눈에 힘없어 보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겠다. 다윗의 선언이고 신앙고백이었다. 오늘 너를 죽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겠다. 모든 것이 확정적이고 처음부터 끝내버리고 시작했다. 나중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손에 칼이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했다. 그러면 뭐로 죽였나? 그의 눈으로 죽이고 신앙고백으로 죽였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뭐가 의미가 있는가? 출발부터 우리는 끝난 인생이다. 언약 잡으면. 그게 미리 정복한 인생이요, 처음부터 끝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도 다윗처럼 되려면 시간 구별해서 서밋타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계속해서 각인 시키는 것이다. 어느날 그 눈이 오는 것이다. 계속 오다가 어느날 그 눈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있는 자는 무기 필요 없다. 40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투구와 갑옷을 벗어놨는데, 그게 무겁고 불편해서 돌 다섯 개하고 물매만 가지고 나아갔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웃기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보기에 이래서 되겠나 싶었다. 다윗은 다른 것 필요 없었다. 돌도 다섯 개 있었지만 한 개밖에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했겠지만 결과는 완전 역전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게 이 눈이라는 것이다. 이 눈이 필요하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인간이 무엇이겠는가? 칼과 창과 단창이나 무게, 키가 무슨 상관있겠는가? 그 대단하던 골리앗은 쓰러졌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칼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로 목 베고 나라 구했다. 이 놀라운 결과가 다윗이 평소에 했던 서밋시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눈 다른 것 하나,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 때 하나님앞에 했던 찬양이 시편 절반으로 온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심고 확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들고 지겨울 때도 있다. 내가 왜 이 바보같은 짓을 왜 계속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답은 이것 하나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심어야 한다. 그래야 뱀의 머리가 깨진다. 이게 안 깨지면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으면 따로 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것 붙잡고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간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밀이고 답이다. 누가 다윗과 같은 아이가 나라를 구할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누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남미와 미국을 살릴것이라고 생각이나 하겠는가? 그러나 결과는 이 작은 서밋시간에 있는 것이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엘리압처럼 일도 시작도 안했는데, 이런 소리 저런소리 하면 부끄럽다. 엘리압은 다윗에게 가서 무릎꿇고 빌어야 한다. 그런데 안 했을 것이다. 자존심 뿐 아니라 안하는 근본이유는 눈이 안 열려서 그렇다.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되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시간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 바란다. 진짜 눈 열려야 한다. 왜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났다 싶으면 기도를 계속 하라. 이게 인생의 답이다. 이게 깊어지면 진짜 답 나게 된다. 기준이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큰 복음을 가졌다면 그 인생 깊은 인생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진짜 복음은 인생을 진짜로 만들어준다. 그게 기준이라는 것이다. 기준이 복음이다. 그리고 소원은 세계 복음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맹종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기바란다. 매일 이 시간을 지속함으로 진짜 뱀의 머리를 깨는 영원한 단이 되기를 바란다.